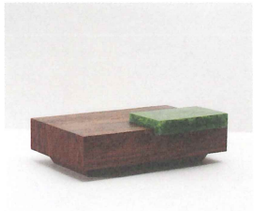


≪Mist Series - Tea Table 03≫
2016

≪Mist Series - Side Table-Y10≫
2017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孫尙佑展 ／ 霧の形状
主催：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駐日韓国文化院・Azabujūban Gallery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048-456-2533
FAX: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ys.es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KCDF Korea Craft & Design Foundation　駐日韓国文化院 Korean Cultural Center　Azabujūban Gallery

SON SANGWOO

2015 B.F.A Department of Craft Design - Furniture Design, Kyungsung University (Busan)
2017 M.F.A Woodworking & Furniture Design, Hongik University (Seoul)

2016 Craft trend fair (Coex, Seoul)
2017 Group exhibition "Enjoyment of Craft" (CR Collective / Sanullim Art and Craft, Seoul)
Craft trend fair (Coex, Seoul)
2018 9th artist-in-residence program of Sindang Creativity Arcade (Seoul Art Space Sindang)
Group exhibition "23.1m²" (S factory／Seoul)

孫尙佑

2015　慶星大学工芸デザイン学科家具デザイン専攻卒業（釜山）
2017　弘益大学大学院修士課程木工及家具デザイン専攻修了（ソウル）

2016　工芸トレンドフェア（COEX／ソウル）
2017　グループ展「工芸の楽しみ」（CR Collective、サンヌリム アート＆クラフト／ソウル）
工芸トレンドフェア（COEX／ソウル）
2018　新堂クリエイティヴ・アーケード第9期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ソウル・アート・スペース新堂）
グループ展「23.1m²」（S factory／ソウル）

孫尙佑 展 / Son Sangwoo Solo Exhibition

霧の形状

Shape of fog

≪Kiri - tray table≫2018

Marunuma Art Park
2018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3

2018年11月8日（木）・9日（金）

2017年より、丸沼芸術の森と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が共同で実施してきた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本年度三人目の作家として滞在制作を行う孫尙佑（ソン・サンウー）は、緑や赤色の紙の繊維が混ぜ込まれた樹脂による家具をこれまで発表してきた。半透明の樹脂は霧をイメージしたものだという。

大学の工芸デザイン専攻で木工家具を学んだ孫は、アーティストを目指し大学院へと進学する。しかし、木を素材としたものでは既出の作品と類似した表現しかできないとの限界を感じ、制作に行き詰ってしまった。新たな作品テーマを求め、京都を取材旅行した際、偶然、朝霧に煙る竜安寺の石庭と出会った。枯山水の小さな空間の幻想的な様相に心を打たれ、その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作品にしたい、と今日の作品スタイルに辿りついたという。つまり、ちぎった韓紙を雌型に配置し、エポキシ樹脂を鋳込む手順で制作するパーツから、霧をイメージした造形を制作する手法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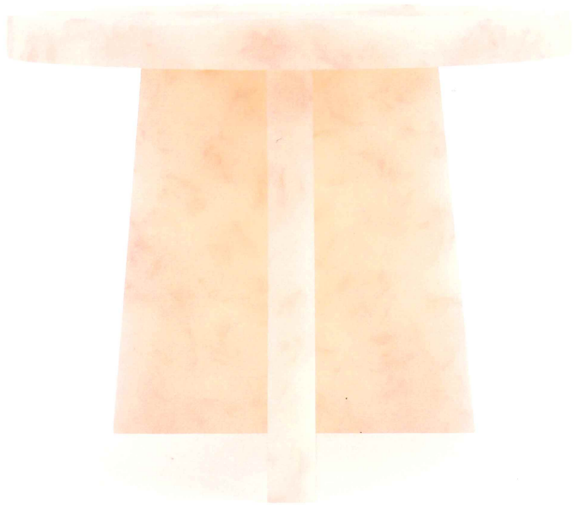
本展で孫が発表する作品の一つ≪Kiri - tray table≫は、韓国でソバンと呼ばれる伝統的な膳の形態となっている。韓国の伝統を、さりげなく織り込みながら、自らのアイデンティティーとなる作品を目指しているという。また、日本の木と和紙を中心に使用し、樹脂を補助的にしか使用しない作品にも今回初めて挑戦するという。

日本で受けたインスピレーションによる自作の、日本で初となる発表を通じ、来場者から得られる反応を期待すると共に、それを今後の作品へさらに反映したいと孫は語る。

大竹輝明（丸沼芸術の森　学芸員）

≪Kiri - tray table≫2018

≪Kiri - tray table≫2018



2017년부터 마루누마 예술의 숲과 한국공예 디자인 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실시해 온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올해의 세번째 작가로 체재 제작을 하게 된 손상우는 녹색과 붉은색의 종이의 섬유가 섞인 수지(樹脂)에 의한 가구를 발표해왔다. 반투명의 수지는 안개를 구상한 것이라고 한다.

대학에선 공예디자인 전공으로 목공 가구를 배웠던 손상우는, 아티스트를 목표로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러나, 나무를 소재로 사용함에 있어 기존의 작품들과 유사한 표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한계를 느끼고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 새로운 작품 테마를 찾기 위해 교토로 취재 여행을 떠난 그는 우연히 아침 안개가 끼인 료안지(竜安寺)의 정원을 마주하게 되었다. 돌과 모래로만 산수를 표현한 카레산스이(枯山水)의 자그마한 공간의 환상적인 모습에 감동하여, 그 영감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마음먹은 것이 오늘날의 작품 스타일에 도달하였다고 한다. 말하자면 먼저 찢은 한지를 틀에 배치하고 에폭시 수지를 주입하는 순서로 제작되는데, 이것은 안개를 이미지한 조형을 제작하는 방식이다.

본 전시에서 그가 발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Kiri - Tray Table≫은 한국에서 소반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상의 형태를 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일본의 나무와 일본 종이를 중심으로 사용하고 수지는 보조적으로만 쓰인다는 작품도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도전하였다고 한다.

손상우는 일본에서 받은 영향에 의한 자신의 작품이 일본에서의 첫 발표를 통해 관람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반응을 기대함과 동시에, 그것을 향후의 작품에 한층 더 반영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타케 테루아키 (마루누마 예술의 숲 학예원)